

역외 위안화의 역내대출 가능여부

(14. 3.)

상해사무소

1 관련 규정

- 역외 위안화의 역내 대출과 관련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에 있어 위안화 결산과 관련한 규정'(11. 10. 13, 이하 "규정")
 - '중국인민은행의 외상직접투자관련 위안화 결산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명확화에 관한 통지'(12. 6. 14, 이하 "통지")
- 상기 규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납입, 대출, 인수합병 등이 위안화로 가능하다고 명시

2 역외위안화 차입 조건

- 역외로부터의 역내대출은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분됨. 외국인 투자기업은 역외로부터 달러 등 외화 뿐 아니라 위안화도 차입 가능
 - **(중국기업)** 역외로부터 달러 등 외화차입은 가능하나 위안화 차입은 불가. 다만, 광둥성 첸하이, 상하이자유무역지구 등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역외로부터 위안화 대출이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 역외로부터 달러화 등 외화대출, 위안화 대출 모두 가능하며 통화에 상관없이 역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외채로 간주되어 동일한 외채관리규정 적용을 받음.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외국인 지분율이 25%이상인 기업
 - 차입가능 한도 : '투자총액-등록자본금' 한도 내
 - 차입금의 용도 : 승인된 사업목적 및 역내외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 가능(통지 17조*)
 - * 통지 17조 : 외상투자기업의 위안화자본금전용계좌와 위안화역외차입계좌의 위안화 자금으로 국내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 차입 조건 : 자본금 완납후 차입 가능(통지 11조*)

- 대출금리 : 중국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차주와 대주간 자율 결정(통지 11조*)

* 통지 11조 :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금이 기한내에 완납된 이후 경외로부터 위안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외 위안화대출의 이자율은 국제상업규범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차주와 대주간에 자율 결정한다. 외국인부동산개발기업은 경외에서 위안화 차입이 불가하다.

통화별 역외대출시 관련사항 비교

	역외 외화 대출	역외 위안화 대출
관련기관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기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초과 대출: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개별 승인 필요 - 12개월 이하 대출 : 외환관리국 승인 쿼터 이하의 경우 가능 ·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가 차입 한도이내의 경우 승인 불필요 - 첫 자본금 납입 완료 필요하며, 자본금납입은 정관에 제시된 일정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는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함 (부동산개발기업은 불가) · 중국기업은 불가(단, 첸하이 및 상해자유무역지구 중국기업은 가능) · 차입금액은 차입한도 이내 · 등록자본금이 모두 납입되었을 경우 역외 위안화 차입 가능 (통지 11조) · 대주는 모회사, 계열회사, 역외 금융기관이 가능 · 대출이율은 차주-대주간 자율 결정(통지 11조)
등록	지역 외환관리국에 등록	지역 외환관리국 또는 인민은행 지점 등에 등록(지역에 따라 다름)
외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외채 : 운전자금 용도 · 사용 : 무역과 서비스 결제, 금융 거래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증권투자, 전대, 모기지 등에는 사용 불가 · 차입금액의 위안화 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기업 : 외환관리국의 승인 필요 - 외상투자기업 : 환전 가능. 역내 차입금 상환용으로는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은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된 사업목적에 의거 사용 가능 · 차입금은 역내외 대출의 상환용으로 사용 가능(통지 17조) · 차입금은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전대,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 불가

자료: King&Wood Mallesons 등 자료 상해사무소 정리

3 최근 우리기업의 움직임

- 과거에는 역외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역외 위안화 조달 자체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나,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 따라 홍콩 등지에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해 짐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입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 일부 대기업들이 실제 역외 위안화 차입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시사점

-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 되면서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위안화 유동성은 점점 풍부해질 전망
- 한국기업들의 최근 대중 투자 목적이 중국을 단순임가공, 저임노동력 활용을 위한 목적에서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점을 고려시 향후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위안화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
- 역외로부터의 위안화 대출은 달러 대출과는 달리 역외에서 차입한 위안화 대출금으로 역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환리스크 감소 등 기업경영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여, 기업들은 달러대출 뿐만 아니라, 위안화 대출도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